

국제화 시대의 파ioni어 / 영한혼용 · 한미 동시판매

BULK RATE
U.S. POSTAGE
PAID
PACIFIC LIFE

PACIFIC LIFE

퍼시픽 라이프

미국을 개혁하는 한국인 임용근의 삶과 정치세계

부동산 특집

꿈틀대는 미국땅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 밝다'
이달의 추천 매물

기획 특집

미국서 울어버린 한국노인들

퍼시픽 인터뷰

이중국적 허용되나

6

발행일 1995년 6월 1일 등록일 1995년 3월 22일 등록번호 라-가126 ISSN 1077-4106 인쇄/편집/발행처 지면 원색판/한국CIS USD3.50 CAD4.50 2,500원 Volume 1 Number 4



수세기에 걸쳐 한국인들과 미국 인디언들은
 매우 세련되고 놀랄정도로 유사한 농경제도, 무기, 농기구,
 건축양식, 의료술 및 한방약재, 수학 및 역법, 식이요법,
 민주적 제도들, 생태적 관습 및 삶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접근방법 등을 개발했다.

한국인과 미국 인디언

다방면으로 “답은 사촌”

Koreans and American Indians



한국 인들과 미국 인디언들간의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수많은 유사점들은 실로 놀랄만하다. 한국인과 인디언들은 공동의 기원, 투쟁, 그리고 미래와 '민족적 자의식'의 생존과 관련된 많은 고민거리들을 공유한다.

고고학적으로 한국인과 미국의 인디언은 몽골리아의 같은 뿌리에서 파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최초로 북미지역의 인디언이 된 사람은 30,000~40,000년 전 베링 지교를 건너 지금의 알래스카 지역으로 온 시베리안 부족의 일원들로 추정되고 있다. 유목생활을 했던 그들은 영영 아시아를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한국인과 미국 인디언들 사이의 연관성은 북 아시아의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한국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타이어족은 터어키

어, 몽고어, 통구스어, 일본어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북 아시아의 시베리아, 몽고, 만주 등 많은 민족들과 같은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인 것이다.

수세기를 거쳐 한국인의 조상이 점차 한반도로 이주해 들어갈 무렵, 미국 인디언들은 수 많은 부족으로 갈라져 거의 두 세기에 걸쳐 동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졌다. B.C.8,000년 경 남미의 최남단에 이르렀던 인디언들은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의 1,000만명을 포함해 약 1,200만명이 미 대륙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비록 씨족이나 부족들간에 크고 작은 싸움을 했었으나, 동맹체계를 통해 기술을 나누고, 세련된 농경기구와 무기를 개발하며, 서로 협력하여 자연 재해나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도 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인디언 사회와 한국의 불교 의례에는 애니미즘적인 믿음과 종교의식들이



제임스 크레이븐
James M. Craven
 클리크대학 경제학 과장.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애니미즘은 자연만물에(산, 강, 바위, 태양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혼들이 존재하며, 만물은 그 영혼에 의해 지배된다는 믿음이다. 또한 고대의 한국인들이 중시 여겼던 토렘사상은 미국 인디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고, 그들이 세운 저 유명한 '토템 폴'은 그 반증이다. 토테미즘은, 인간은 다른 많은 창조물들 중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인간은 모든 만물을 신성시 하고 각종 금기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 고대의 한국과 현재 미국 인디언 사회를 보면 '샤먼(주술사)'이라는 것이 있는데 '샤먼'이라는 말은 시베리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한 영과 접촉하거나 그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수세기에 걸쳐 한국인들과 미국 인디언들은 매우 세련되고 놀랄정도로 유사한 농경제도, 무기, 농기구, 건축양식, 의료술 및 한방약재, 수학 및 역법, 식이요법, 민주적

제도들, 생태적 관습 및 삶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접근방법 등을 개발했다. 이런 많은 것들은 극심한 상황과 자연재해, 그리고 말살적인 외부의 탄압과 침략에 대항하며 생겨나고 발전했다. 특히 미국 인디언들은 노예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세력의 끊임없는 침략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종말살'의 위협을 받았다. 인디언들은 고유 언어 사용 금지와 말살정책을 경험했고, 자신들의 땅으로부터 떠밀려 강제 이주를 당했으며 고유의 이름, 가족 관계, 고유의 음식과 문화 전반이 말살되어가는 고통도 참아야 했다 뿐만아니라 미국 인디언들은 1923년까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인디언들은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식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도 미국 주류사회의 '진짜 시민'들이 누리는 아주 기본적인 자유와 기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미국 인디언들은 미국 헌법과 시장 경제가 약속한 수



한국인들과 미국 인디언들은
매우 세련되고 놀랄정도로 유사한 농경제도, 무기, 농기구, 건축양식, 의료술 및 한방
약재, 수학 및 역법,
식이요법, 민주적 제도들, 생태적 관습 및
삶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접근방법 등을 지녀왔다.



많은 것들과 자신들의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과 환경 사이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격차를 경험할 뿐이다.

미국 인디언들은 'BIA(인디언 사무국)'에 의해 아직도 많은 단속과 속박을 받는다(사실상 '백인 사무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무국', '히스패닉 사무국'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수입을 얻고 있으며, 자살률의 통계를 봐도 전 미국인 자살률의 4배나 윗돌고 있다. 평균 인디언 여성들의 수명은 미국내 백인 여성들의 73세에 크게 못미치는 47세이며, 남성들 역시 백인의 71세에 비해 49세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 자손들이 '진짜 일본인'들이 누리려는 권리와 기회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아직 먼 길을 더 가야 하는 것처럼, 미국 인디언들도 미국 헌법의 보장, 미국 시장 경제의 약속들을 이행받기에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다.

The many historical and even present-day parallels between Koreans and American Indians are quite striking. In some places, Koreans and American Indians share some common origins, some common struggles, and some common concerns about the future and the survival of the "nation and identity."

The best archeological evidence suggests that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share common roots in Mongolia. The earliest arrivals of American Indians in North America were probably members of Siberian tribes who crossed the Bering land bridge into what is now Alaska perhaps 30,000 to 40,000 years ago. They were nomadic peoples, unaware that they were leaving Asia as they progressively moved eastward and southward seeking better game and land.

Gradually over many centuries and during the same time periods that ancestors of Koreans were migrating into the area of present-day Korea, American Indians split into many tribes and spread out eastward and southward over two continents reaching the southern tip of South America perhaps as early as 8000 B.C. By the time of Columbus in 1492, perhaps 12 million

Just as those of Korean descent in Japan, for example, have a long way to go to enjoy the rights and opportunities afforded those considered "real Japanese", so too American Indians have a long way to go to enjoy the rights and opportunities gua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promised by the market economy of the U. S.

Indians lived in the Americas with perhaps 10 million living in Mexico, the Caribbean and lands to the south.

In ancient Korean and American-Indian societies, and in present-day American-Indian societies and certain Buddhist practices in present-day Korean societies, common Animistic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can be found. Animism is the belief that natural objects and forces (mountains, rivers, rocks, the sun, ect.) are inhabited or controlled by spirits that influence events, human lives and human fortunes. Further, Totemism, which was important to the Clan and later Tribal system of ancient Korea, was and is also practiced among American Indians and is reflected in the celebrated Totem Pole. Totemism is the belief that a human being is simply a creature like and among other creatures and that since clans could be descended from other creatures (e. g. bird, horse, bear etc.), all creatures were considered sacred with certain taboos to be observed in dealing with them. In ancient Korean society as well as in ancient and present-day American Indian societies, there were shamans. The word shaman is from Siberian roots designating a person who is supposed to have intimate contact with and perhaps control over certain spirits.

Over the centuries, Korean people and American Indians developed very sophisticated and strikingly similar agricultural practices, weapons, agricultural implements, architectural innovations, medical

procedures and herbal medicines, mathematical and calendar systems, dietary habit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hilosophical and religious approaches to life and nature. Many of these innovations were developed in response to brutal conditions and forces of nature as well as in response to repeated attacks and invasions by outside forces bent on the destruction of a whole race of people.

American Indians were not recognized as American citizens until 1932. Even today, many American Indians, even with formal citizenship, live in society without access to some of the basic freedoms and opportunities guaranteed to those who are deemed to be the "real citizens" of the broader society. For many American Indians there are wide and widening gaps between the promises of the U. S. Constitution and the market economy of the U. S. on the one hand, and the harsh realities and conditions of life on the other hand. American Indians remain under various controls of the Bureau of Indian Affairs (B. I. A.) while there is no comparable "Bureau of White or African-American or Hispanic Affairs." American Indians have a per-capita income that is one-third that of white Americans. American Indians have a national suicide rate that is four times the national average. The average life expectancy for an American Indian woman is 47 years old versus 73 years old for a white woman. American Indian men average 49 years of life versus 71 years old for white men in the U. S. Just as those of Korean descent in Japan, for example, have a long way to go to enjoy the rights and opportunities afforded those considered "real Japanese," so too American Indians have a long way to go to enjoy the rights and opportunities gua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promised by the market economy of the U. S. ■

번역/정채리 기자